

시민 크리에이터, 문화도시의 연결고리를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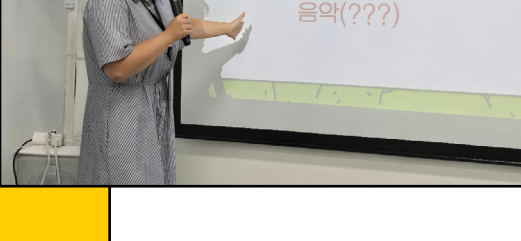
글. 임혜련, 전소현

나도 처음부터 지역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은 아니었다. 지역에서 문화를 만드는 사람들의 동료가 되어 '기획'을 찾는 과정에서 지역 관심이 높아졌다. 막상 들여다보니 번식력 강한 애플민트 마냥 날리고 날려 있는 게 '기획'였다. 아무리 애플민트라 한들 사용하지 않으면 풀떼기에 불과하듯, 공공의 영역 또한 관심을 굳이 두지 않으면 지나칠 수 있는 풀떼기 취급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양쪽을 이해하는 매개자가 필요하다. 공급자의 자원을 수요자에게 맞게 전달할 수 있는 유연하고 창의적인 매개자, 여기에 시민 크리에이터만큼 적합한 역할은 없다.

무엇이 문화도시일까? 문화도시부평을 알리는 시민 크리에이터 <뉴스핀스>를 모으기 전에 했던 고민이다. 문화도시는 사실 실체가 없는 추상이다. 음악도시 부평이 피부로 와닿는 순간은 누군가가 피땀 흘려 만든 '기획'을 경험하는 순간이다. 그렇기에 문화도시의 실체는 우리가 만들어가고자 하는 도시를 기획하고, 실제로 구현해내는 문화생산자들의 손에 달려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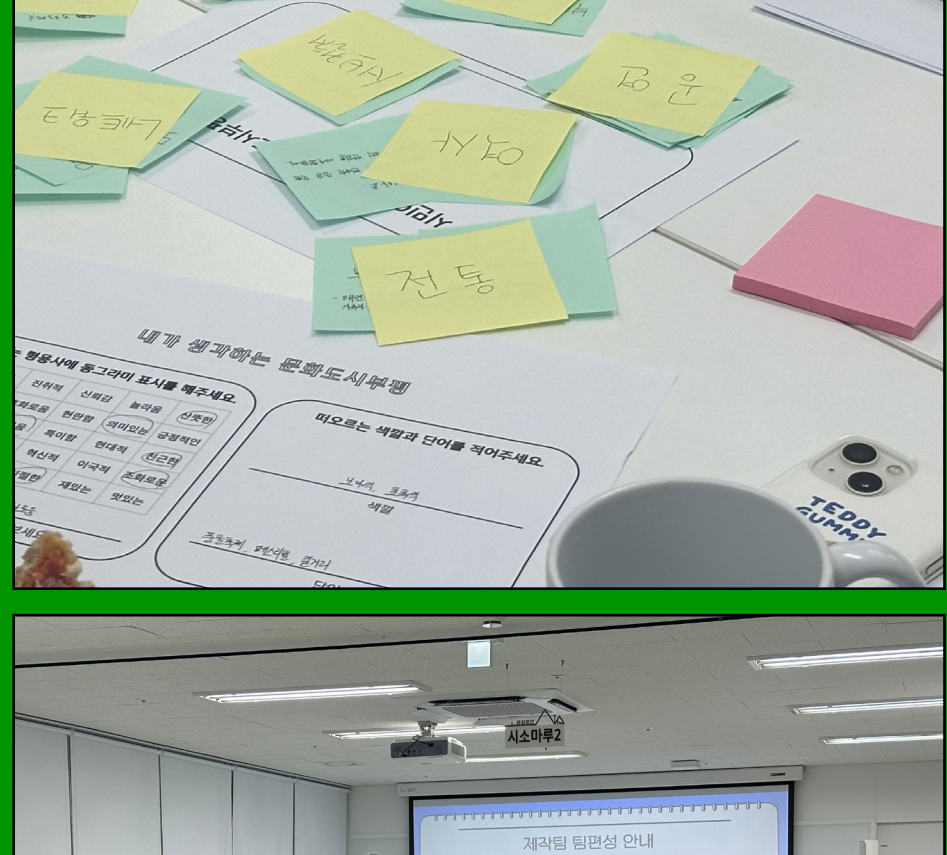
시민의 관점에서 문화도시부평은 하나의 TV 프로그램처럼 보일 수도 있다. 우리가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 - 제작 과정을 모르고, 편집된 장면만 보듯이. 시민들도 참여자의 입장에서 어떤 기획의 앞면만 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시민 크리에이터는 다르다. 일반 참여자가 아니라, 이 프로그램을 알리는 사람의 입장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이걸 왜 하고, 어떻게 했는지' 등의 객관적인 시선이 더해진다.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문화생산자들의 입장에 서보기도 하고, 그 사람들을 인터뷰하기도 하면서 문화생산자와 가까워진다. 이때 비로소 문화도시부평을 소비하는 일차적인 관계가 아닌, 문화도시부평을 구성하는 시민으로서 적극적인 관계에 돌입할 수 있다.

News Jjeans



시민의 눈으로 바라보는 문화도시부평

이러한 적극적인 관계를 돌입하기 위해, 시민 크리에이터들과 함께 먼저 한 일은 바로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문화도시부평'을 키워드로 자유롭게 나열하는 것이었다. 이는 '문화도시부평'에 대한 추상적인 이미지를 실체화해나가는 과정 중 하나로, 주로 '커뮤니티·음악·활기찬·조화로운' 등의 다채로운 키워드가 나오게 되었다. 궁극적으로 시민들은 '문화도시부평'을 일상 속에 음악처럼 흐르는 삶의 음악이라고 표현했고, 이를 통해 우리는 '온통플로우부평'이라는 전체적인 뉴스레터의 방향성을 잡을 수 있었다.



음악·예술·문화 세 가지 키워드로 풀어보는 문화도시부평

수많은 키워드 중 가장 중심이 된 세 가지 '음악·예술·문화'를 주제로 팀을 꾸렸다. 각 팀은 정해진 키워드 속에서 '문화도시부평'을 각자 자신만의 시선으로 자유롭게 정의하며 활동을 펼쳤다. '음악' 팀은 노래가 흘러넘치는 '뮤직 플로우 페스티벌'과 음악 프로그램을 탐구하며, '예술' 팀은 부평 속 다양한 예술 교육과 공연으로 접근했다. '문화' 팀은 시민 거버넌스와 '굴포천천히'를 통해 뉴스레터를 점진적으로 구체화했다. 또한, 올해 진행된 사업뿐만 아니라 과거 사업들을 돌아보며 지난 4년간의 문화도시부평의 성과를 간접적으로 이해해보는 시간도 가졌다. 나타주 시인의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라는 말처럼, 직접 자신들의 시선을 통해 바라보고, 찾고, 기획해보니 점점 문화도시부평의 다채로움이 구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막연하게 보였던 문화도시부평의 사업들이 시민 크리에이터들의 자유로운 시선을 거치니 울곧게 흐르는 강물처럼 하나로 중첩되고 있었다. 게다가 사업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서로 함께 연결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부평 뮤지션'을 직접 만나 인터뷰하거나 예술 활동이 열리는 음악 프로그램, 소공연 등을 직접 찾아가 체험하며 사람들과 새로운 연결고리를 만들어갔다.

이처럼 시민 크리에이터 <뉴스핀스>는 문화도시부평을 단순히 소개하는 것을 넘어, 공간을 재해석하고, 사람들과 함께 유대하며, 이를 '뉴스레터'라는 새로운 시선으로 연결하고 있었다.



다양한 세대가 힘을 합쳐 만들어가는 뉴스레터



<뉴스핀스>의 사업 특별함 중 하나는 세대 통합이다. 20대부터 60대까지 서로 다른 세대가 '문화도시부평'이라는 공감대를 중심으로 섞여 함께 콘텐츠를 만들었다. 가장 고 연령대였던 60년대생 참가자분께서는 시민 크리에이터 활동을 통해 '문화도시부평'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었고,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콘텐츠를 만들면서 새로운 시각을 깨닫게 된 좋은 기회였다고 말하기도 했다.



전국의 문화도시들이 중요시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시민 참여와 거버넌스'다.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문화기획과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지역의 고유한 문화콘텐츠를 지속해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민 크리에이터 <뉴스핀스>의 '뉴스레터'는 더 넓은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연결점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기록을 넘어, 사업 이후에도 누구나 시민 크리에이터가 되어 문화도시부평의 다채로운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소통의 창구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임혜련 인천뚜버기

인천 곳곳을 누비며 인천의 매력을 알리는 로컬 크리에이터입니다.

인스타그램에서는 '인천뚜버기@walking_incheon'로 활동하고 있어요.

전소현 로컬생활자 소피

누구나 로컬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는 방법과 장을 기획합니다.

인스타그램에서는 로컬생활자 소피 @local.sop 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뉴스진소

19명의 시민 크리에이터가 문화도시부평의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매력을 뉴스레터 (온통플로우 부평)로 전했다. 이들은 10월 4일부터 8주간,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축제와 다양한 프로그램, 무료 사업까지 재미나고 알찬 소식을 속속 보냈다.

